

레이건호 정비 끝나면 칼빈슨호 돌아갈까

한국 해상 진입 놓고 해석 분분
日 신문 “레이건호 공백 메우기”
“사실상 증파...항모 2척 체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배수량 10만t)가 빠르면 이번 주말 한국 근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정기 점검과 정비를 위해 작전을 중지하고 있는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일뿐 “증파”는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니혼게이아이(日本經濟)신문 고사카 데쓰로 편집위원은 11일 컬럼에서 칼빈슨호 한반도 전개는 북한과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서태평양 지역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전개 자체가 미군 전력의 “증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 항모전단은 평소 서태평양 지역에 최소한 1개 전단을 전개하고 있다.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지에서 예측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동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해군 3함대 소속 칼빈슨호가 현재 남중국해에 전개하고 있는 것도 요코스카(横須賀)를 모항으로 하는 7함대 소속 원자력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점검과 정비를 위해 작전을 중지하는데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이 시기에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22가 오기나와(神奈川)의 가네나(加手納)공군 기지에 날아오른 것도 서태평양 지역에 힘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빠르면 15일께 한국 근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칼빈슨호가 태평양을 항해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다. 지난 8일께 싱가포르 근해를 떠난 칼빈슨호는 빠르면 이번 주말 한국 근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항모전단의 대 지상 공격능력과 항모전단을 이루는 순양함의 미사일 공격능력 등을 근거로 칼빈슨호 전개는 “한반도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다만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 항상 1개 항모전단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의 이번 결정이 곧 “증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향후 관심의 초점은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이 정비를 끝내고 작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상순 이후에도 칼빈슨 전단이 한반도 근해에 계속 머물지 여부가. 항공모함 2척 체제가 유지되면 가령 한 척의 갑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해 작전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폭격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함재기가 다른 한 척에 내릴 수 있다. 미국 함대 전체로는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996년 중국과 대만간 양안위기 때도 미 해군은 항공모함 2척 체제를 갖추었으며 “진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태세를 과시, 대만 침공 기회를 노리던 중국군을 억제했다.

1991년 걸프전쟁 때 미군은 걸프만과

동지중해 등에 항모전단을 가장 많을 때는 5개 전단을 전개하면서 이라크를 폭격했다.

이에 비해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미군은 가네나와 이와쿠니(岩國) 등 주일 미군지사와 주한미공군기지 등에 있는 항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폭격작전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가령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타격하는 제한적인 작전이라면 걸프전쟁 때 처럼 많은 항모전단을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 2-3개의 전단이면 충분하다.

미국 항모전단의 작전기간은 보통 6개월이 조금 넘는 정도다. 칼빈슨호가 올해 초 미국 서해안에서 출항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2-3개월은 작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개 전단이 전개하는 셈이 돼 그 시점에서 “증파”가 확정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진짜 긴장”도 그 시점에서 시작된다.

일본의 한 안보관계자는 “미군이 지금 정착 주시하고 있는 건 북한군이 아니라 중국군의 동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북한 동북부로 들어와 동해에 면한 나진 일대를 실효 지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나진항을 군항으로 만들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원자력잠수함의 모항으로 삼으면 미국 본토가 사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 대한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이 일거에 떨어지게 된다. 중국군의 동해 진출은 미국과 일본 모두에 악몽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한반도를 뒤흔드는데 그치지 않고 북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크게 바꾸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틸러스 방러...시리아 해법 찾을까 렉스 틸러스(오른쪽)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틀 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 /연합뉴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갑질 논란에 워런 버핏, 1000억 주식 피해 불똥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탑승객 강제 퇴거 논란이 미국을 물론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에도 애먼 불똥이 튀었다.

이번 사건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의 모회사인 유나이티드 콘티넨털 홀딩스의 주가가 11일(현지시간) 급락하면서 버핏이 9000만 달러, 한화 약 1031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보도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승객 퇴거 영상이 보도되면서 미국 안팎에서 항공사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이 일었고 백악관까지 나서서 “불행한 사건”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나이티드 콘티넨털 홀딩스의 주가는 장중 최대 4%까지 빠졌다가 1.13% 하락 마감했다.

문제는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현재 유나이티드 콘티넨털 홀딩스의 지분 9%를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이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지분은 현재가로 약 20억 달러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중 4% 급락 지점에 버크셔 해서웨이도 본 손해를 환산하면 약 9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포천은 설명했다. 다만 투자의 귀재라는 이름이 아깝지



지난 9일(현지시간)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에서 승객 데이비드 다오(69)가 끌려 퇴거 당하는 모습. /연합뉴스

않게 버핏은 다른 항공주 투자로 유나이티드 콘티넨털 홀딩스의 손실을 메운 것으로 보인다. 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각각 3.8%, 1.6% 오르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재산 규모를 1억400만 달러 늘렸다.

버핏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델타와 유나이티드 등 4개 항공사의 주식을 대거 사들여 왔으며 좋은 투자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대북 송유관 잠글까...시진핑의 고민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항모인 칼빈슨 전단을 한반도로 이동시키는 한편 중국이 제약을 못하면 독자행동에 나서겠다고 연일 압박함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된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해법일 수 있는 중국을 어떻게든 움직이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동하면서, 중국이 모종의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배가치 못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6~7일 열린 미중정상회담을 전후로, 이런 의지의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는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처지가 다급해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유연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적어도 세계 목적의 북

중 양국 간 거래는 용인한다는 제스처를 취해왔으나, 그 이상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섬’과 같은 북한으로선 중국이 유일한 석유 공급 국가여서,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잠그면 말 그대로 에너지난에 직면해 모든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북중점점 무역도, 중국이 북한에 터준 유일한 송유관이다.

12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점차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 강화로 핵개발을 포기시키려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면도 있으나, 중국으로서도 이참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어 보인다.

중국 은행들은 북한 국적자가 개설한 개인 명의 계좌를 폐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北 선제 타격론 불 지퍼 위기탈출 노력

일본 정부와 정치권, 언론이 한반도 위기론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명목으로 적기 지 공격능력 보유론을 제기하고 있고,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결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향하는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추진에 발맞춰 일본의 무장 강화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니혼게이아이신문은 12일 미국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일본과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였다. /연합뉴스

앞서 교도통신도 전날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미일 고위 관료 협의에서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Strike)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 정세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익명의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었다.

여담인 자민당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안전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전수방위(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의 공격)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선제공격을 하자는 발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숙박시설]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실버타운 요양원 적합부지 토지 3,613㎡ 건물 2,752.77㎡ 감정가 12억9천3백 ▶ 최저가 7억2천4백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정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측 일반공업지역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2천2백 ▶ 최저가 27억4천5백
- ★ [대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4,494㎡ 계획관리지역 무인텔신축 최적할지 감정가 10억3천3백 ▶ 최저가 5억7천8백
- ★ [무인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객실 28개, 토지 1,373㎡ 건물 1,908㎡ 감정가 45억 1천만 ▶ 최저가 31억5천만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북구 용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중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기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 ★ [토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답 34,085㎡ 분할매수가 매매가 상당후결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전·대·임야 52,299㎡ 평당5만 (협의가)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